

기고

급증하는 마약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김수빈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 배우가 연루된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마약 투약 등 다양한 형태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은 지역과 장소, 연령대를 불문하고 곳곳에 깊게 침투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마약 투약은 그 종류에 따라 달리 처벌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마를 투약·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약사범 관련 법원은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대검찰청이 공개한 2023년 11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단속된 사람은 총 2만5,188명으로 국내 마약류 사범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끊이지 않는 마약 범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마약사범들에게 더욱 강력한 단속·처벌을 해야 할까? 아니면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며, 더 늦기전에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본다.

또한, 검·경·관세청·식약처 등 마약 근절 총력대응에 앞서 마약을 배척하겠다는 국민들의 확고한 마음가짐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강력한 중독성에 몸과 정신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헛된 삶이 아닌 보람 있는 삶을 살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인간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쥐고 태어나는데 이것은 장차 무엇인가 많이 가진 자가 되겠다는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욕심에 따라 노력하여 많은 돈과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직위에 서게 되지만, 멀리 내다보면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이 나며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두 손을 펴고 빈손으로 죽는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욕심은 있어야 하지만, 인생의 종점을 내다보면 산다면 부질없는 과욕을 버려야 한다. 따라서 인생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분수에 맞게 적응하며 부질없는 과욕은 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당초에 하나님의 것이었으며 빈손으로 태어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재산을 잠시 빌려 쓰다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많이 빌려 쓴 자나 적게 빌려 쓴 자나 떠날 때는 다 반납하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성경 '전도서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솔로몬왕의 인생에 대한 슬회이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며 절대 권력을 쥐고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일찍이 세기의 철학자요, 예술가며, 예언자이자, 종교 지도자였던 솔로몬왕이 삶을 회고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을 슬회하고 세상을 떠났다. 솔로몬왕이 인생에서 좋다는 것을 다 누려본 뒤 전도서에 남긴 메시지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이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죽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겸허해지라는 것이다. 즉 아모르 파티(Amor fati)이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잘 나간다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다는 것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허해지라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를 누리는 것이다. 즉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다. 살아있는 동안 기뻐하고, 주어진 환

경에 순응하고, 욕심내지도 말고, 주어진 하루에 만족하며 충실히 살라는 것이다.

인간이 노력하여 소유한 돈과 재산과 직위와 명예도 건강이 지켜 준다. 모든 것을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죽음으로써 다 버리고 빈손으로 떠난다. 그러므로 인생의 우선순위 투자는 건강에 해야 하며 특히 노년은 심신의 건강을 위해 시간과 재화를 투자해야 한다.

인간이 헛된 삶에서 벗어나려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화(財貨)를 투자해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한다. 한국 사람은 노후에 가진 것을 자녀에게 많이 상속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재화 때문에 자녀들의 분쟁 소지가 되므로 재화는 죽기 전에 다 정리해서 보람 있게 써야 하며 사회 복지를 위해 시간과 재화를 투자해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보람 있는 삶이 헛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인류는 보람 있는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의 유산으로 문명사회를 만들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인간의 삶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곡성군은 군의 목표를 행복하게 사는 곡성군민이라고 군청사 현수막에 내 걸고 있으며 모든 것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곡성군민은 헛된 삶이 아닌 보람 있는 삶을 목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인간이 돈을 모으는 목적을 보면 우선 먹고살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인데 노후를 위해 자식을 낳아 교육하고 투자하고 있으며 저금통장에 저축하고 있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에 자식이 떨어져 살며 효도 하지 않으면 헛된 투자를 한 것이며 통장의 돈 관리를 잘해야 노후에 안심하고 쓸 수 있으며 부동산은 하나님 것을 잠시 빌려 쓰다 가는 것이므로 빚을 내어 집을 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노후를 행복하게 살려면 현명한 투자를 해야 헛된 인생이 안 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

기고

화재예방을 위한 첫걸음은 주택용 소방시설

안도현 담양소방서 고서119안전센터 소방사

많은 사람이 고향에 방문하고 화기사용이 잦은 명절 특성상 평소보다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설 명절은 건조한 겨울철날씨 및 난방기구 사용과 겹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주택화재 사망자는 1천 452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3천 169명)의 45.8%를 차지한다. 또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화재 115,039건 중 주거시설 화재가 31,165건으로 27.1%이다.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7,081명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피해가 3,387명으로 47.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화재 피해중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2017년

부터는 기존 주택까지 보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에도 주택용 감지기 보급률이 40%대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대처와 대피이다. 먼저 초동대처에서 소화기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화재 발생 5분 내 골든 타임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 차량 1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다음으로 대피를 위해 화재감지기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두가 잠든 새벽시간 화재감지기를 통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비용도 비싸지 않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고을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